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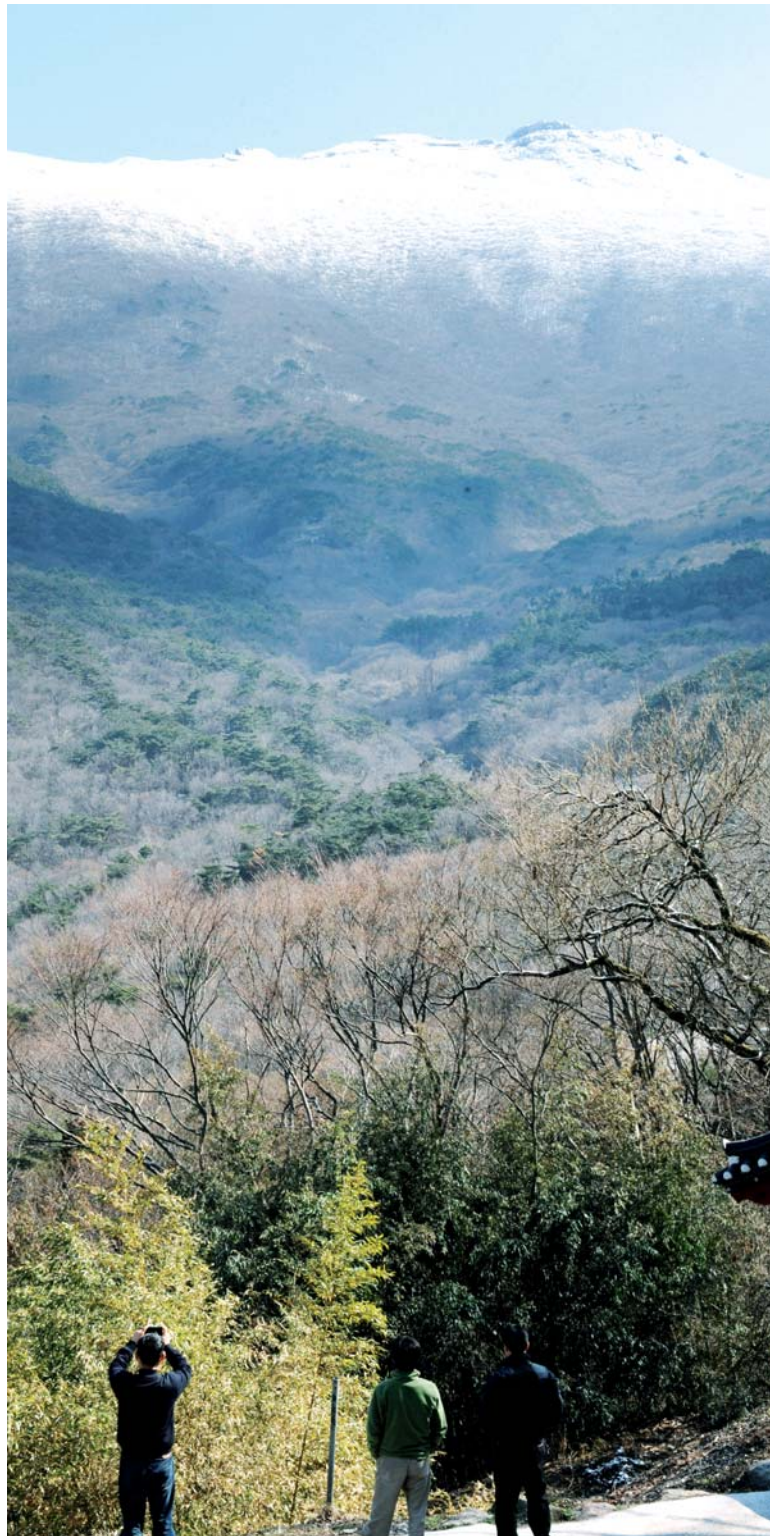
광주 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10명 중 9명 보상 못받을 판

당정, 지원 기준 75→85데시벨 상향 추진...반발 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원 기준을 크게 축소해 법안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음피해 주민 10명 중 9명이 피해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3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음피해 지원 기준을 '85데시벨(WECPNL·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준은 그동안 피해 주민들이 요구해온 '75데시벨 이상'보다 크게 축소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주는 광산구와 서구 등 피해 주민 가운데 '85데시벨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6~7%에 불과한 상황

이어서 추가 집단 소송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재 광주에서는 송정동을 비롯한 원장 국감현) 측은 피해 지원 기준을 '75데시벨 이상'으로 할 경우 전체 피해 주민이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 정부 방침인 '85데시벨 이상'으로 적용될 경우 피해 주민 수는 7000~1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시행되면 광주의 소음 피해 주민 가운데 93% 가량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또 이같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소음피해 배상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보다 크게 낮은 것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

관)는 지난해 12월 1일 "항공기 소음이 '80데시벨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군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14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항공기 소음이 '80데시벨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 한도를 넘어 위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부의 지원 기준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다만 지역 정치나 전문가 등은 정부의 이번 법안이 2월 임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광주를 비롯한 전국 소음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주민들 역시 국방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09년 12월 이후로도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등산 봄과 겨울의 공존
수줍은 듯 연두빛을 띠고 봄을 마중하는 나무와 눈 덮인 산이 어우러져 절경을 빚어냈다. 2일 광주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무등산 지붕에는 새하얀 눈이 내려 앉았다. /나영주기자 mjna@

올해 영암 F1대회 본격 시동 걸었다

서울서 론칭쇼...10월14일 개막·입장권 30% 인하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 F1(포뮬러)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 2일 국내에서 공식적인 입장권 판매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성공 개최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3면>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모터스포츠의 꽃' F1은 연간 400만명의 관중에 TV 시청자 수만 6억명(188개국)에 달하는 메르드급 이벤트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박준영 전남도지사·이하 F1 조직위)는 2일 서울서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그랜드 론칭쇼'를 열고 올해 입장권 가격 및 대회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인의 스피드 축제, F1 질주'라는 슬로건을 내건 F1 코리아 그랑프리 국내에서 공식적인 입장권 판매에 들어가는 첫 행사로, 박준영 F1 조직위원장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재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서 열리며, 총 20라운드로 치러지는 '2011 포뮬러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ship) 시리즈 중 16번째 라운드로 개

최된다. F1조직위는 특히 올 코리아 그랑프리 경우 지난해보다 입장권을 평균 30% 인하하고 티켓 조기 구매자들에게 할인 폭을 50%까지 높여 젊은 층을 비롯, F1 대회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방침에 따라 지난해 평균 46만 원 수준이던 입장권 가격은 올해 31만5000원으로 떨어졌다. 가장 비싼 티켓(메인그랜드스탠드 R석)의 경우 지난해 101만2000원에서 89만원으로 인하됐다. 지난해 12만8700원이던 최저가 티켓도 8만70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조직위는 "국내 스포츠마케팅 시장의 규모와 고가 티켓구매 경험 부족한 소비자 성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기별 할인 시스템(Early bird)을 도입, 이달 말까지 구매 고객에게는 50%, 4월말까지는 30%, 6월말까지는 20%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준영 지사는 "올해는 일찍부터 F1 대회 홍보와 마케팅을 시작해 코리아 그랑프리 흥행과 운영 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주장 주변의 자연환경과 문화·예술·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써 전남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흥서도 AI...재확산 우려 울산에선 또 구제역 의심신고

전남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AI가 담양에 이어 고흥에서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도 허탈해하고 있다. 구제역도 울산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도는 2일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한 오리 농장에 대해 국립수의과

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변이되기 쉬운 'H5형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달 26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담양군 담양읍 육용 오리 농장과 같은 경기도 여주 부화장에서 새끼 오리를 입식한 곳으로, 전남도는 집단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3

만1000마리에 살(殺)처분·매몰 작업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특히 경기도 부화장을 통해 오리를 입식한 농가가 담양·고흥을 포함, 도내 11개 시·군 18개 농가(19만7000마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확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양·고흥 외에 경기도 부화장에서 오리를 입식한 농가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지만 현재까지 다른 농장에서는 아직 별다른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AI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농가 소독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 이어 울산에서 또다시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2여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새출발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전남중 (13회), 광주일고 (21회)
- 전남대 법학과 (77학번), 전남대 대학원
- 제2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15기), 군법무관
-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순천지원판사

◆ 학력 및 경력 ◆

- 남원지원장, 목포지원장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건설, 전담, 행정)
-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장
-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장

변호사 김 병 하 올림

■ 업무개시 : 2011년 2월 21일 ■ 개업주소 : 광주 동구 준법로 25(지산동 708-33, 로얄빌딩 2층)
■ 개업소연 : 2011년 3월 18(금) 16시~ ■ 대표전화 : 062-236-0046, 팩스 062-225-5959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낙지 먹고 싶다” 석 선장에 서삼석 무안군수 산낙지 선물

“오뉴월 뽕밭에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무안 산낙지 드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후 구출 작전 도중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 최근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삼호주요리호 석해군(58) 선장에게 ‘무안 빨낙지’가 전달됐다. 무안군은 “석 선장이 입원해 있는 수원 아주대병원을 찾아 산낙지 1점(20마리)과 패우를 비는 서삼석 군수의 서신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무안군은 “최근 의식을 회복한 석 선장이 무엇을 먹고 싶느냐는 물음에 ‘회와 산낙지를 먹고 싶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낙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출신인 석 선장은 지난 28일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후 “겨울철이라 회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특히 낙지와 산낙지가 먹고 싶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서삼석 군수는 편지에서 ‘은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고 의식을



임갑수 무안군 서울사무소장이 석해군 선장에게 무안 낙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주대병원 제공>

드린다"고 밝혔다. 서 군수를 대신해 2일 산낙지를 전달한 임갑수 무안군 서울사무소장은 “석 선장이 글도 직접 읽고 표정이 매우 밝았다”면서 “석 선장 부인이 낙지를 전달해 준 것에 매우 감사했으며, 퇴원하면 무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석 선장의 건강이 낙지를 먹을 정도로 회복되는 양아 시식은 뒤로 미뤄졌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VIP정회원
- 입회금액 : 3억3000만원 - 모집인원 : 20명
- 회원특전 :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일 1회 18홀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무기명카드 1매발급 : 그린피 50%할인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제공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해피정회원
- 입회금액 : 1억원 - 모집인원 : 49명
- 회원특전 : ●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 A형, B형, C형 중 선택(1)
A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B형 지정회원 미선택시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우대혜택
C형 무기명카드 1매 :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일 1회)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제공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주중 / 평일회원
- 입회금액 : 3300만원 - 모집인원 : 50명
-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선 할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VIP회원 및 해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Fax. 061-330-5009